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8.9.20.(목) 10:00	배포	2018.9.20.(목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이 윤 수 (02-2100-2601)		담 당 자	김 준 사무관 (02-2100-2516) 김 민 석 사무관 (02-2100-2518)	

## **제 목 :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주요 제재사례**

### **1. 개요**

- 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사건들을 심의·의결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,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·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

### **2. 주요 제재 사례**

- ① 내부자(회장·등기임원)가 “대규모 유상증자 실시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(수사기관 고발, 2018.O.OO. 증선위 의결)
- ② 준내부자(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)가 “대규모 유상증자 결정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(수사기관 고발, 2018.O.OO. 증선위 의결)
- ③ 내부자(회장·등기임원)가 “외부감사인의 반기점토의견 거절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(수사기관 통보, 2018.O.OO. 증선위 의결)
- ④ 내부자(회장, 대표이사)가 “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(수사기관 고발·과징금, 2018.O.OO. 증선위 의결)

- ⑤ 대표이사가 가장납입을 통한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해외 사업진출 등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(수사기관 고발·통보, 2018.0.00 증선위 의결)

(붙임) ‘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’ 참조

### 3. 향후 계획

- ☐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별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은 정기적(예: 분기별) 또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
- ☐ 또한, 금융위는 식약처와 정보 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
- ☐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·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
  -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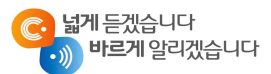
#### <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
  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'증권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
 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73, 5582, 5549, 5556
  - 팩스 : 02-3145-5580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## 1.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건

- A○○는 △△△△△(주) 회장(등기임원)으로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·지시하며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하였으며, 이후 동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B○○에게 전달
  - B○○은 “유상증자결정”에 관한 정보 공시 며칠 전부터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
- C○○은 △△△△△(주) 상무로서 자금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계획을 구상하고 보고하며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하였으며, 이후 동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D○○에게 전달
  - D○○은 정보를 전달받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
- △△△△△(주)의 주가는 정보 공개 후 하한가를 기록하였고, 그 결과 B○○과 D○○은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

### < 사건 개요 >



## 2.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전

-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임원인 △△△△△△△(주)의 상무 E○○은 유상증자의 대표주관사 선정 협의 과정에서 “대규모 유상증자 결정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였으며,
  - 이후, 동 정보를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(주)□□□□□의 전환사채 투자자인 F○○(▽▽▽▽▽▽▽ 대표)에게 전달하였음
  - F○○는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자신의 보유수량 전량을 매도하여 수익원의 손실을 회피하였음
- 수사기관에 고발된 E○○과 F○○ 이외,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될 경우 E○○의 전 소속회사인 △△△△△△△(주)에도 관리·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할 예정

### < 사건 개요 >



### 3.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건

- G○○은 코스닥 상장사 (주)△△의 회장(등기임원)으로서 외부 감사인이 반기검토의견 거절을 확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회사의 재무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동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한 뒤,
  - 동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친인척 H○○ 및 I○○에게 전달
- H○○은 “외부감사인 반기검토의견 거절”에 관한 정보 공시 하루 전 자신의 보유수량 전량을 매도하였고, I○○ 또한 보유주식 전량을 시장가로 매도
- (주)△△의 주가는 반기검토의견 거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, 4거래일 연속 하락하여, H○○, I○○은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

#### < 사건 개요 >



#### 4.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전

- (주)△△△△ 회장 J○○은 동사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관련 정보를 (주)□□□□ 회장인 K○○과 ◇◇◇◇◇◇ 이사장 L○○에게 전달하여
  - K○○과 L○○은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하여 각각 수천,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함
- M○○은 (주)△△△△ 대표이사로서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 아내 및 차명계좌의 주식을 매도하여,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, ‘임원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
- M○○은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 대표이사 N○○ 및 (주)▽▽▽▽ 대표이사 P○○에게 세무조사 결과 정보를 전달하여, N○○과 P○○은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각각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
- N○○은 M○○로부터 들은 정보를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 감사 Q○○에게 전달하였으며, Q○○은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함

#### < 사건 개요 >



## 5. 가장납입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통한 주가부양 사건

- (주)△△△△의 업무를 총괄하는 R○○와 대표이사 S○○은 공모하여,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사채자금을 동원한 가장납입을 실행하고
  - 주가 부양을 위해 에너지절감장치에 관한 해외 수주, 합자회사 설립, 국내 화장품업체와의 합병을 통한 해외수출사업 진출 등 허위·과장된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뒤, S○○ 명의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
- 또한, T○○(주)□□□□□□□□ 前감사)은 (주)△△△△이 (주)□□□□□□□□와 합병한 후,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허위·과장된 보도자료를 작성·배포하여 R○○의 부정거래 행위에 조력하는 한편,
  - 허위·과장된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가 부양된 틈을 이용하여, 동사 주식을 매매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

